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5화 감동한 바라나시왕



바라나시의 왕은 눈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사슴을 향하여 화살을 날렸다. 화살에 맞은 사슴은 고통을 몸부림치며 죽어갔고 왕의 잔인한 행동을 바라본 왕비의 마음은 슬픔에 젖었다. 왕 역시 죽어가는 사슴을 쫓아 잡으려 달려오던 사슴을 잡을 때와는 달리 별로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다.

“아! 이게 뭐야. 아무 재미도 없잖아. 이것은 사냥이 아니고 백정처럼 그저 도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나는 이미 사슴왕과 약속을 해 버렸으니 공연히 사냥의 재미만 놓쳐 버리고 말았구나.” 바라나시의 왕은 사슴 왕과의 약속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날도 할 일 없이 궁녀들을 데리고 정원을 산책하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다. 그때 또 한 마리의 사슴이 왕의 사

냥감이 되기 위해 궁중의 정원으로 찾아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사냥에 흥미를 잃어버린 왕은 얼른 화살을 쏘지 않고 그저 희생될 순번에 따라 찾아온 사슴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사슴과는 달리 이번의 사슴은 죽음을 목시도 두려워하는 듯 얼굴을 내리고 몸을 바들바들 떨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때 또 한 마리의 사슴이 수풀을 헤치고 달려오고 있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 나중에 뛰어난 사슴은 얼마 전 왕과 흥정을 성공시켰던 바로 그 사슴 왕이었다. 사슴왕은 먼저 와 있던 암사슴을 향하여 이상한 몸짓을 하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먼저 와 있던 사슴은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그 큰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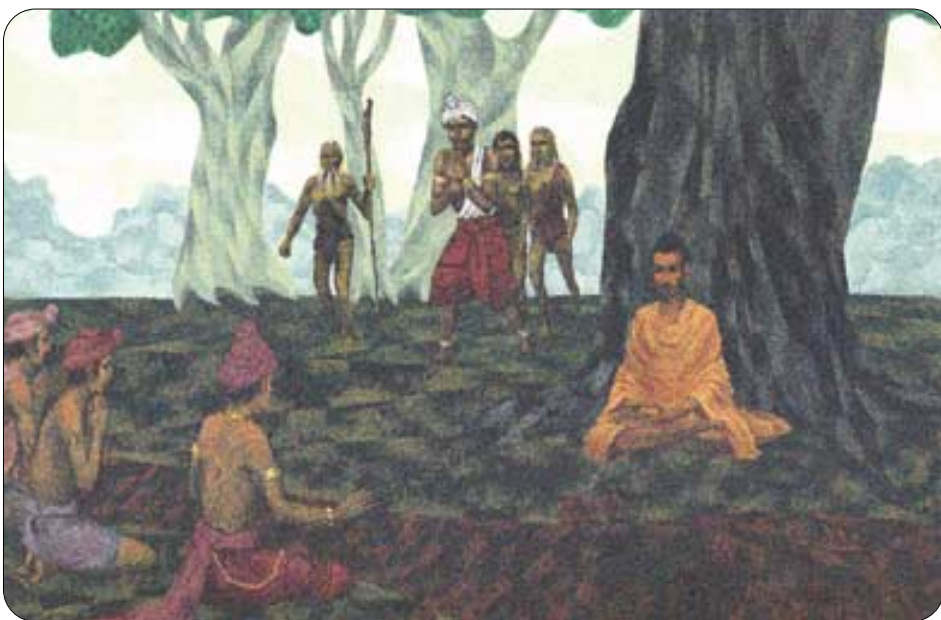


이 두 마리 사슴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있던 바라나시 왕은 자기가 알 수 없는 모종의 곡절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바라나시의 왕은 지난번처럼 마음을 모아 그 사슴 왕에게 무슨 영문인가 물었다. 그러자 사슴왕은 역시 지난번처럼 왕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전해왔다.

“대왕마마, 이 암사슴은 우리가 뽑은 순번에 의하여 오늘 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슴은 지금 새끼를 배고 있으므로 지금 자기가 죽으면 몸속에 있는 죄 없는 새끼들도 같이 죽게 될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암사슴은 데바(提婆)사슴왕의 지휘 밑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 자기의 사정을 제왕에게 호소해 보았으나 그가 순서를 지킬 것을 명령하여 할 수 없이 울면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후에 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아도 죄 없는 그의 새끼들을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죽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슴왕의 설명을 들은 바라나시의 왕은 사슴왕의 자비심에 크게 감동하여 더이상 사슴 사냥을 못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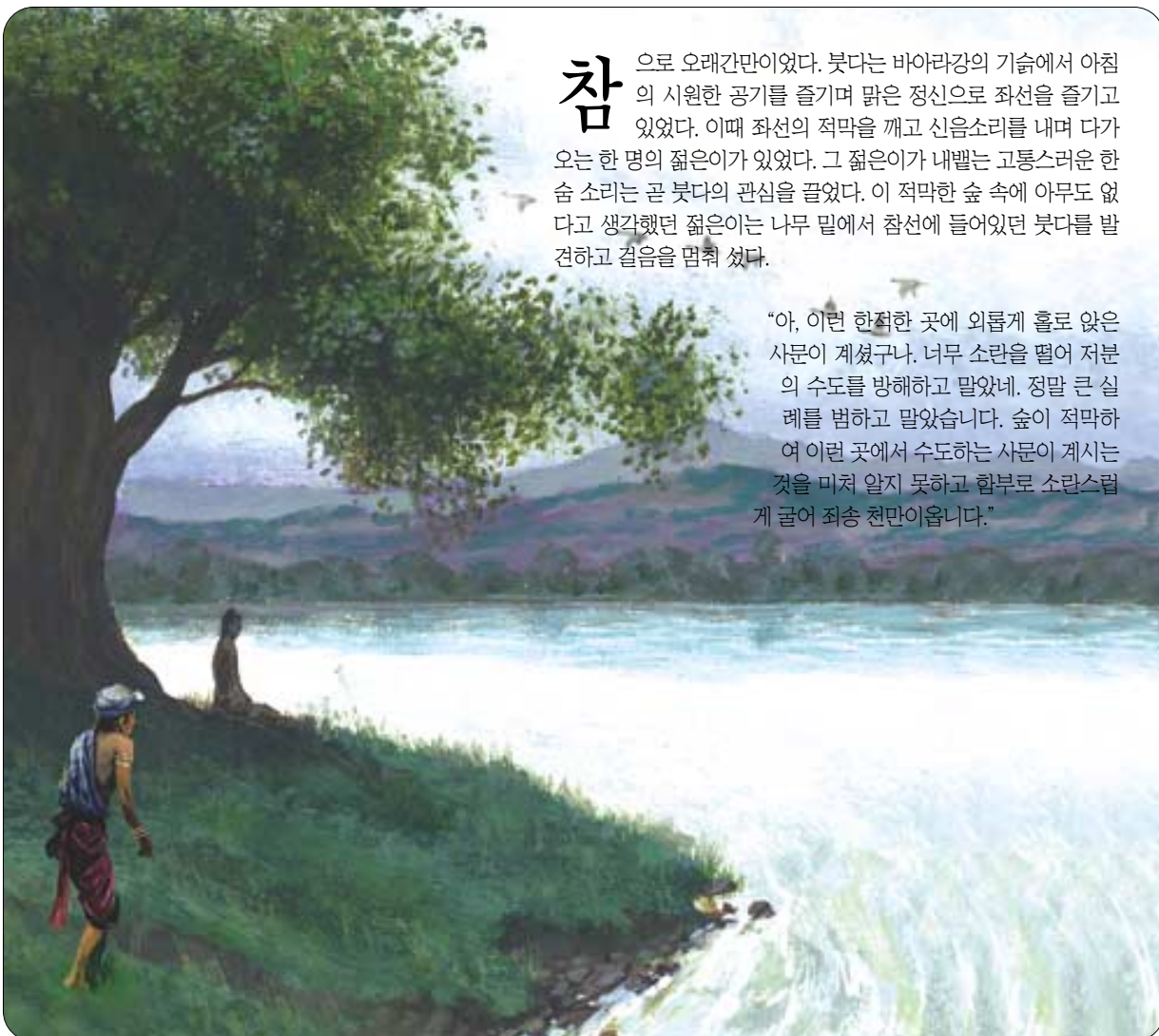
평 화롭고 아름다운 물가다마는 ‘이시파타나(Rsiptana)’라고도 하는데, 이는 많은 수행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다. 부처님과 그의 다섯 제자들은 모두 여섯명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단을 탄생시키고 있었다. 이 최초의 승가(僧伽, Sangha) 여섯명 중 두 명은 서로의 순번에 의하여 매일 같이 탁발하여 공동분배 하였고 다른 네 사람은 계속하여 그들의 깨우침을 널리 전파시키기 위한 방법에 몰두하게 되었다.

부처님이 사슴동산에서 행한 최초의 설법을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고 한다.

법륜(法輪)이란 담마캇카(Dhammakka)로써 ‘진리의 수레바퀴’라는 뜻이다. 수레바퀴는 고대 인도에서 전쟁에 쓰던 부메랑의 일종으로 적을 향하여 던지는

것이어서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전륜’ 역시 세계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진리의 수레바퀴를 쓰러지지 않게 계속 굴러야 하며 이 수레바퀴가 구르는 동안 진리는 계속 퍼져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전륜성왕 역시 성왕의 힘을 계속 굴러서 결국 세계를 통일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전륜성왕(轉輪聖王)은 ‘차크라 바르틴(Cakra-Vartiraja)’이라는 인도의 범어인데, 수미 4주의 세계를 통솔하는 대왕을 말한다. 인도는 그 국토가 넓어 예전부터 단 한번도 통일 국가를 이루어 본 적이 없었다. 다만 전설 속에서만 전륜성왕이 나타나 인도 천하를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가장 이상적인 군주를 가르키는 것이다.



참으로 오래간만이였다. 붓다는 바야라강의 기슭에서 아침의 시원한 공기를 즐기며 맑은 정신으로 좌선을 즐기고 있었다. 이때 좌선의 적막을 깨고 신음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한 명의 젊은이가 있었다. 그 젊은이가 내뿜는 고통스러운 한숨 소리는 곧 붓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적막한 숲 속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젊은이는 나무 밑에서 참선에 들어있던 붓다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춰 섰다.

“아, 이런 한적한 곳에 외롭게 홀로 앉은 사문이 계셨구나. 너무 소란을 떨어 저분의 수도를 방해하고 말았네. 정말 큰 실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숲이 적막하여 이런 곳에서 수도하는 사문이 계시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힘부러 소란스럽게 걸어 죄송 뵈옵니다.”

“아니아. 괜찮으니 너무 염려 말게나. 나는 지금 몸과 마음을 조용히 쉬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도 젊은이에게 있는 것 같아 걱정이군. 도대체 무슨 고통이 그리 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려 들고 있는가? 지금 자네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내뿜는 숨소리와 또 그 살인이라도 저지를 듯한 그 분노의 표정으로 보아 자네는 지금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한 괴로움으로 자신을 극도로 학대하려고 하고 있어!”

“자아리 가까이 다가오게.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전후 사정을 풀어보게. 어쩌면 내가 자네가 찾고 있는 해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나?”

“사문이시여. 저의 이 고통스러운 사연을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바라나시에 살고 있는 대지주 구리간의 아들 야사스(Vasas 耶舍)이옵니다. 저의 집은 경제적으로 풍부하여 바라나시의 상류층 인사들과 항상 같이 어울리며,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나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잔치를 펼치고 놀았습니다. 잔치에는 으레 춤과 노래와 연주가 따르는 밤이 아님니까? 우리는 많은 무희들을 불러 들였지요.”

